

데스크 시국



윤영기
체육부장

“아이들이 양궁 스타 기보배나 이승운 선수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만난 광주시 양궁협회 김성은 전무는 들뜬 표정으로 올해 목표를 귀띔했다. 우선 “현역 선수나 지도자들과 함께 광주시 남구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운동하느라고 바쁜 선수들이 과연 재능 기부에 나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는 다짐하듯 단호하게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국제양궁장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인 만큼 광주양궁협회가 시민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재능 기부 나선 양궁협회의 경우

광주시양궁협회와 남구청이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이른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양궁의 재미를 맛보게 해 주는 체험 행사이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미 지난해 말 광주 국제양궁장이 있는 남구 지역 아동센터 49곳과 체험 교육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양궁장비를 들고 이들을 찾아가길 계획인데,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복지관도 방문한다.

뭘 특별한 것도 없는 재능 기부 사업을 그리 장황하게 설명하느냐고 고개를 가웃하는 이도 있을 수 있겠

운동만 잘하면 됐지 무슨 소리냐고?

다. 하지만 광주시 양궁협회가 추진하는 양궁 재능 기부 사업은 연중행사로 매주 3회기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니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어느 경기단체든 으레 진행되는 일회성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사업이 달리 보이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끌고 가려면 소명 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통틀어 봐도 이처럼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단체는 없다. 더구나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체육지도자 16명과 주요 선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오로지 성격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훈련 시간은 금쪽과도 같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기꺼이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들이 ‘쫄맨 훈련 시간’은 한 어린이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세계 골프 무대를 주름잡는 박세리 키즈처럼 기보배나 최미선의 뒤를 잇는 선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굳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은 양궁을 체험해 봤다는 추억 하나는 갖게 될 것이다.

유석우 광주시 핸드볼협회장은 학생 동호인 대회를 위해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지난 2017년 취임 이래 협회장기 핸드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매년 열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학내 스포츠 동아리다. 전문 체육인 양성이 목표인 학교 운동부와는 다르다. 보람을 찾으려면 핸드볼 팀을 운영하는 학교를 도우면 생색도 나고 좋으련만, 유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생소’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나 도로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한 핸드볼 저변을 확대해야겠다는 나름 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철학 때문인지 그의 노력은 작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한 초등학교 선수

들이 본격적인 운동을 위해 핸드볼 팀이 있는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니 말이다. 감독이 순발력 있는 학생을 뽑아 운동부에 밀어 넣고 선수로 키워 내는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양에서 출발한 학교 스포츠클럽 출신 선수들은 분명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스포츠의 공적 역할 고민할 때다

오늘 광주 양궁협회와 핸드볼협회의 사례를 들어 글을 쓰는 것은 광주-전남에 스포츠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스스로 선택해 참여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팬이 되는 스포츠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서 하는 스포츠는 ‘평생 운동’이 될 것이며, 삶의 질을 바꿔 놓기도 할 것이다. 체육단체로서도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존재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 되니 일석이조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44곳이 있다. 광주에 10곳 전남에 34곳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선수들은 사실상 중공무원 신분으로 생계를 보장받고 운동한다. 이들에게 주어질 지상 과제는 소속 자치단체와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고 성적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고만 다면 그냥 직장인 운동선수일 뿐이다. 이들이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청소년과 지역민들에게 기부하면 어떨까. 운동만 잘하면 됐지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에는 열성 팬이 없는지 생각해 봤느냐”고 묻고 싶다.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다.

/penfoot@kwangju.co.kr

社說

나주시, 부영주택에 기여이 특혜 베풀 셈인가

나주시가 (주)부영주택 측이 요청한 혁신도시 내 골프장 토지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줄 경우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익 확대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다음달 3일 부영주택 측의 토지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여론을 사업자 측에 알리고 사업 내용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사회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언론의 철저한 비판에도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에 줄곧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전남

혁신도시포럼·빛가람동주민자치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운동본부는 그제 성명을 내고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영골프장 토지 용도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토지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돼 5000여 가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사회는 녹지 비율 축소, 도로·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아파트 초과 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등 부작용과 후폭풍에 휩싸일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이렇다 할 대안조차 없이 행정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난 2019년 부영주택과 맺은 3차 합의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주시는 부영 측이 수익에만 눈이 멀어 지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 명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설 명절 택배 물량 증가를 감안, 과로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어제 “설 특수를 앞두고 배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명확하다”면서 “실질적 대책과 분류 작업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선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해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배송과 집회 업무만 담당하게 되면 현재 전체 노동 시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분류 작업 시간이 줄어

들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2.7시간이며 월 평균 근무일은 25.6일에 달한다. 가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다. 이 때문에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택배사와 정부가 지난 추석 때부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그 뒤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지난해 초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첫 회의에서 분류 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달 말 열린 2차 회의에서 택배사 대표로 참석한 물류통합협회가 합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설 명절 배송은 오는 25일께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설 명절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택배 대란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지로 내몰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은편칼럼

우리안치와 신중년의 삶



이병우
우아포인트 대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안치(鰥寡安置)란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가 현대판 우리안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안치가 어떤 형벌입니까? 조선시대에 중죄인에게 내린 형벌로, 집 주위를 가시나무로 둘러 쌓아 외부와 차단해서 유배자를 움짱달짝 못 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만 조그만 구멍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14 일간의 외부 격리도 힘든데 기약 없는 우리안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연산군-중종 때의 인물인 이행은 우리안치 중일 때의 심정을 ‘해도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시나무로 사방을 둘러 배 안에 있는 듯하나/ 탕자나무로 거둬 세워 하늘도 보이지 않네/(...) / 산가지 세며 책 읽은 들 중내 어디에 쓰겠는가?/ 세상사 험한 길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네” 이 시구 중에서 “책을 읽은들 중내 어디에 쓰겠는가?”라는 구절이 절절하게 끝납니다. 이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쓸데가 없다고 느낄 때의 무력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신중년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칫하면 우리안치와 같은 처지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의 단절, 거처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이 우리안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민의 연령에 따른 행복도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나이별 행복지수를 보면 U자 곡선을 보입니다. 44세를 최저점으로 다시 우상향 곡선입니다. 믿지 어렵겠지만 70대엔 20대 못지 않은 행복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독 신중년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신중년은 자아 정체성과 역할 부재에서 오는 갈등 때문이라는 데 다른 나라에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신중년의 만족스러운 삶의 조건을 보면 첫째 인식의 전환과 내려놓기, 둘째 존재감의 회복, 셋째 쓸모 있음의 재정립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 안에서 올라가는 방법만 추구하다가 조직 밖으로 나왔으니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조직인으로 최적

화된 탓에 자유인의 삶은 주체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 양성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주제 기관 대표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역일 때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자랑하는 인물들이 은퇴 후에 지내는 모습은 대개 세 가지라는 겁니다. 골프를 치거나 등산,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손주 자랑하기라고 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선호하는 상위 활동은 멘토링을 비롯한 교육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경력자들을 바로 멘토로 투입하면 사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진 조직에서 일하다 초기 창업자들을 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젊은 창업자와 마찰을 빚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찌어찌 힘내는 데 적어도 2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60세에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75세까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로 책도 그때 쓴 것이 가장 좋았다면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식의 전환과 쓸모의 재정립만 할 수 있으면 우리안치의 위험은 얼마든지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연령별 행복지수도 U자를 그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기 고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지방의 대응 방안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일과 삶, 생활 패턴이 완전히 변해 버린 뉴노멀 현상으로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며칠 전 리모컨을 뒤적여다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한 중국의 핀테크 관련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보았다. ‘차이나 플랫폼의 급격한 지각변동 속에서 그 전략과 명암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주제였다. 그걸 보는 동안 중국에서 근무할 때 체험했던 경험, 최근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등 많은 부분이 오버랩됐다.

10여 년 전 만해도 중국의 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현금이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아 해프닝도 가끔 생겼다. 예를 들어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가면서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흔하 있었다.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택시미터를 조작하여 비싼 요금을 물리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을 자주 경험했다.

또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위조지폐가 사회문제

화될 정도로 골칫거리였다. 100위안짜리 위안화를 받으면, 상점 주인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감별한다며 지폐에 인쇄된 마오쩌둥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져보거나 플래시로 비춰 보면서 감별하곤 했다. 고객을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물론 ‘위폐’라며 눈을 부라리는 경우도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현금 결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어떻게? 중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실감한다. 제작년에 베이징에 갔었는데 과거와는 전혀 판판이다. 이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QR코드나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다. 택시 요금이나 음식 요금도 휴대폰을 활용해 알리바바그룹이 개발한 알리페이나 IT 대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로 결제한다.

핀테크 도입을 통한 스마트 상점도 이미 정착되었다. 스마트 상점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상점을 말한다.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주문과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 오더가 대표적이다. 몇 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의 서민적인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테이블 위 바코드를 스캔해 직접 결제하면서 그 편리함을 체험하고 놀란 것이 바로 이러한 핀테크 시스템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기술 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중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선두주자로 급부상했다. 금융 뿐 아니라 우주·항공, 조선,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 굴기 현상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한 중국을 마주해야 한다. 지금은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진 점이 없지 않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조치가 풀리면 한중 관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모바일 핀테크가 일상화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전남 지역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위로 성급 올라서 버린 중국인의 IT수준에 걸맞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인공 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실코드를 구축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손님맞이 수용 태세를 지금부터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삶의 주변에 파고드는 디지털 혁명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처럼 급변하는 소용돌이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초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현실감 있게 인식해야 한다.

無等鼓

새해 벽두부터 국내외에서 사면(赦免) 논쟁이 뜨겁다. 국내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논란이 일더니, 미국에서는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잔치’로 시골 벽적하다.

하지만 국내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일단 일단락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엇그제 신년사에서 사면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사면 잔치’를 벌이면서 미국 사회에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의 사돈과 최측근 30여 명을 사면함으로써 ‘마지막 사면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퇴임 전날에도 100여 명을 사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면의 근본 취지를 크게 벗어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양에서 사면 제도는 중국 한나라 때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 역시 고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며, 삼국시대 이래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25년, 백제 55년, 고구려 197년에 각각 사면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사면은 사실상 군주 권력의 숭고성을 상징한다. 이 때문에 군주의 덕과 선정에 기초를 둔 특권 행위로 생각되어 온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세기를 거치며 사면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이후 사면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다. 따라서 사면은 국가원수의 권한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는 사면은 어떤 형태라도 법질서를 해치는 ‘권력 남용’ 일뿐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